

석유화학제품으로 해외시장 공략 적극 나서

현대오일뱅크 는 지난 5월, 스페인의 정유 및 석유화학사인 CEPSA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인근에 60만톤 규모의 방향족 및 큐멘 30만톤 생산시설 신축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
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47만톤 규모의 방향족 시설에 신설 예정인 방향족 60만톤, 큐멘 30만톤의 생산시설을 확보, 137만톤의 방향족 및 큐멘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됐다.

현대오일뱅크와 CEPSA는 양해각서에 따라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산 공장 인근에 BTX 등 방향족 생산설비를 추가로 증설하기 위한 동등 지분(50:50)의 조인트 벤처(Joint-venture)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.

이번에 확충될 현대오일뱅크의 방향족 생산시설은 최대 연산 60만톤의 파라자일렌(P-Xylene), 연산 30만톤의 큐멘(Cumene)등의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.

김성용
현대오일뱅크 홍보팀장

“현대오일뱅크는 방향족 생산시설 확충
프로젝트가 마무리 되면 부가가치가
높은 파라자일렌을 생산하게되며,
대부분의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다.”

현대오일뱅크는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연산 137만톤 이상의 기초 방향족 제
품과 큐멘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게 되며, 방향족 제품 중 가장 부가가치가
높은 파라자일렌을 주로 생산하게 돼 생산원가와 공장 가동효율 측면에서 국제적인
경쟁력을 가지게 된다.

특히, 현대오일뱅크는 확충된 방향족 시설을 통해 생산된 제품 대부분을 아시아 시
장 내 CEPESA가 투자한 석유화학 단지과 공장 등으로 수출할 예정이며, 나머지 물
량도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.

〈표〉 현대오일뱅크 방향족 공장 개요

구 분	주요 내용
공장 위치	충남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공장 부지 일원
설비규모	<p>총 137만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기존 : 47만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파라자일렌 36만톤, 벤젠 11만톤 ▷ 신설 : 90만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파라자일렌 60만톤, 벤젠 (15)만톤, 큐멘 30만톤 <p>* 벤젠은 생산하여 큐멘의 원료로 사용됨.</p>
완공시기	2009년 하반기
기대효과	연간 7500억 원 매출증가

“수출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지난해 석유제품 및 BTX 방향족 제품의 수출이 총매출의 34%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45%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.”

현대오일뱅크는 이번 CEPS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귀중한 외자도입과 함께 아시아 시장의 판매망 확대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또한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, BTX 생산능력은 현재의 3배 가까이 확대되고, 전략 파트너인 CEPSA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.

한편, 스페인 CEPSA는 석유와 석유화학 사업뿐만 아니라, 천연가스 및 전력 분야에서 스페인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사인 아랍에미레이트(UAE)의 IPIC사가 주주로 있다.

CEPSA는 석유화학 제품을 연 400만톤 이상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. 또 스페인과 브라질, 캐나다에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유럽과 알제리, 이집트, 파나마 등 글로벌라이제이션(Globalization)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수출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현재 현대오일뱅크는 석유제품 및 BTX 방향족 생산제품을 중국, 일본, 필리핀,

“확충된 방향족 시설을 통해 국내 수요처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한 수익증대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.”

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1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.

지난해 총 7조 9천억원의 매출 가운데 2조 7천억원 이상 수출을 기록해 약 34%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수치다.

현대오일뱅크는 올해 최대 45%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.

현대오일뱅크는 중기전략으로 향후 석유 제품외에 BTX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선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이번 현대오일뱅크와 스페인 CEPSA와 방향족 제품 증설 프로젝트는 명실공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.

이 공장의 완공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,

현대오일뱅크는 확충된 방향족 시설을

통해 국내 수요처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

국내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비롯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지역 다변화를

통한 수익증대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. ◆